

후 지의 글

백영옥 한국여성재단 이니광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큰 축복이다.
소설이 아내인 한스라임의 삶의 이야기라는 데서 감동을 받는다.
초대, 대량, 여남, 아내, 남편, 전문직사회의 으르렁의 젊은날의
삶의 주체에서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반성하는 그의 삶의 향기가
읽는이가 자기의 삶을 대변해보며 가슴을 치게 한다.

한스라임 아내가 한스라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도록
크다는 게 우습고 또 이 책을 읽을수록 아내가 하는 모든 이 글들이 되고
있을 것 같다.

저자가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한국여성재단의 홍보대사
로서 활동하게 된 것은 한스라임 아내가 가르쳐 준 삶이며 할머니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할머니에 대한
이런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랑과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생의 또 한쪽면이 후속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추천의 글

2.4.11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펴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축복이다. 소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라는 데서 감동을 받는다. 손녀, 딸, 여성, 아내, 엄마, 전문직사회인으로서의 젊은 날의 삶의 굽이마다에서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반성한 그의 삶의 향기가 읽는 이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슴을 치게 한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한 사람의 사람됨에 미치는 영향이 그토록 크다는 깨우침으로 어른들을 숙연하게 하는 것도 이 글들이 지니고 있는 힘이다.

저자가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게 된 것은 할머니가 가르쳐준 삶이며 할머니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과 할머니의 한을 통해 얻은 성 인지성을 엿볼 수 있다. 생의 또 한 토막의 후속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추천의 글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펴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축복이다.

소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라는 데서 감동을 받는다.

손녀, 딸, 여성, 아내, 엄마, 전문직사회인으로서의 젊은 날의 삶의 굽이마다에서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반성한 그의 삶의 향기가 읽는 이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슴을 치게 한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한 사람의 사람됨에 미치는 영향이 그토록 크다는 깨우침으로 어른들을 숙연하게 하는 것도 이 글들이 지니고 있는 힘이다.

저자가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게 된 것은 할머니가 가르쳐준 삶이며 할머니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과 할머니의 한을 통해 얻은 성 인지성을 엿볼 수 있다.

생의 또 한 토막의 후속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